

# 롤러블레이드 '이번에도' vs 최강팀 '이번에는'

롤러블레이드, 1차전 2.5마산차 V 2위 차지한 최강팀 설욕 여부 주목 케인로드·초인강자도 우승 도전



최강 2세 국산마를 가리는 주버나일 시리즈 두 번째 관문인 농협중앙회장배에는 '롤러블레이드'(사진)를 비롯해 문화일보배 입상마들이 대거 출전한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주버나일 시리즈 두 번째 관문을 넘어라.”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서울 경마공원에서 27일 제9경주로 제16회 농협중앙회장배가 펼쳐진다. 성별 관계없이 2세 국산마만 출전할 수 있는 1200m 단거리 경주로, 총 상금은 3억 원이다. 최강 2세 국산마를 가리는 주버나일 시리즈 두 번째 관문으로, 서울 첫 번째 관문인 문화일보배 입상마들이 이번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롤러블레이드**(수, 2세, 한국, 레이팅 50, 김형란 마주, 강환민 조교사, 승률 75.0%)  
‘오피서’의 자마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우승마 ‘월드선’, 브리더스컵 우승마 ‘킹삭스’와 부마가 같은 명문 혈통 출신이다. 주버나일 시리즈 1차 관문이었던 문화일보배에서 최고 인기마 ‘최강팀’을 2와 1/2마산 차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3회 수득상금이 출전마 중 가장 높은 약 1억7000만 원이다.

●**최강팀**(수, 2세, 한국, 레이팅 47, 박남성 마주, 박대홍 조교사, 승률 66.7%)  
출전마 중 가장 높은 몸값 약 2억1600만 원에 도입됐다. 지난 문화일보배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으나, ‘롤러블레이드’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데뷔 후 모든 경주에서 2위내에 들어 복승률이 100%다.

●**케이엔로드**(수, 2세, 한국, 레이팅 32, 조경수 마주, 박대홍 조교사, 승률 25.0%)  
‘올드패션드’의 자마로 ‘최강팀’과 형제다. 지난 문화일보배에도 같이 출전해

2위 ‘최강팀’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출발번호와 상관없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특징이며, 1200m에는 3번 출전해 우승 1번, 3위 1번을 했다.

●**초인강자**(수, 2세, 한국, 레이팅 44, 박남성 마주, 안병기 조교사, 승률 66.7%)  
데뷔 후 3번 출전해서 2번 우승, 1번 준우승했다. 특히 직전에 참가한 9월 1300m 경주에서 2위와 5마산(약 12m)이라는 큰 차이로 우승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마 ‘메니피’는 한국 최강

씨수마로 자마들이 2012년, 2014년 농협중앙회장배에서 우승했다.

●**탁트인**(암, 2세, 한국, 레이팅 50, 김광명 마주, 지용철 조교사, 승률 75.0%)  
3연승 중인 경주마로, 지난 9월 경주에서는 출발부터 결승선까지 1위를 놓치지 않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최근 뜨고 있는 씨수말 ‘한센’의 자마로 자매마 ‘신의명령’, ‘클래식매치’ 등이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어 혈통적 기대가 높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마사회 ‘명예 핸디캡퍼’ 참가자 모집

한국마사회가 ‘명예 핸디캡퍼’를 운영한다. ‘핸디캡’이란 공정한 경주 시행을 위해 출전마 간 능력 차이에 따라 부담중량을 추가하는 경마 제도다. ‘핸디캡퍼’란 핸디캡 제도를 운영하는 전문위원으로 과거 성적을 기반으로 경주마의 능력을 평가하고, 부담중량을 부여하는 사람이다. 명예 핸디캡퍼로 선정된 사람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여 동안 일일 핸디캡퍼로 참여해 월간 경주계획, 경주 결과에 따른 국내·국제 레이팅 부여 등을 참관한다.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 운영하며, 회차별 2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름, 연락처, 희망일시, 참석 사유를 적어 이메일(ssg@kra.co.kr, 2150081@kra.co.kr)로 신청하면 된다.

## “2020년 말박물관 초대작가를 모집합니다”

한국마사회, 12월 20일까지 접수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말박물관이 10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0년 초대작가를 공모한다. 말 문화 보급과 예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말과 관련된 소재의 미술 작품(평면, 입체 모두 가능)을 제작하는 참신한 작가들을 발굴, 소개한다. 개인이나 단체 모두가 지원 가능하며 특히 지역 공방과 사회협동조합 등 소규모 예술 공동체

를 우대한다.

말박물관은 2009년부터 해마다 약 5명의 초대작가를 선정해 기획전시실에서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각 김선규, 도예 유종욱, 회화의 장동문 등 유명 중진 작가들의 전시가 이뤄졌으며, 신인 작가들이 첫 번째 개인전을 여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6주 이상의 기간 동안 대관비 없이 무료로 전시를 열 수 있고, 보도자료, 기업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



2019 초대작가전-김선규 '영혼의 수호자'

을 통해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와 말박물관 블로그(http://blog.naver.com/horse-museum) 공지사항에서 전시계획안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전시 주제와 말 관련 소재의 작품 10점을 첨부해 이메일(curator@kra.co.kr)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총 다섯 팀 또는 개인을 선정하고, 2020년 6~8주간 전시장 대여와 도슨트 설명, 리플렛 제작 등을 지원한다. 말박물관 관계자는 “초대작가 선정 시 예술공동체에 우대 쿠틀(40% 이상 선정)이 적용되면서 한 작가가 말 소재의 작품을 10점 이상 그려야 하는 부담이 많이 감소했다. 전시를 통해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단체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 대통령배 출발번호 추첨 유튜브 생중계

한국마사회는 31일 오전 11시 제16회 대통령배(제9경주, 국산OPEN, 2000m, 총상금 8억 원) 출발번호 추첨 행사를 경마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11월 3일 열리는 대통령배는 최강 국산마를 가리는 경마 대회로 총상금 8억 원이 걸려 있다. 출발번호는 경주 전개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원하는 번호를 뽑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엇갈리는 희비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용운 기자



## 축구팬 72% “EPL 선두 리버풀, 토트넘전 승리” 창원 판매점주 대상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축구토토 승무패 36회차 중간집계 K리그선 울산·전북 각각 승리 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26일(토)부터 28일(월)까지 벌어지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와 국내프로축구(K리그)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6회차 리버풀-토트넘(13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71.72%가 홈팀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팀의 무승부 예측은 16.69%로 나타났다. 원정팀 토트넘의 승리 예상은 11.59%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리버풀은 현재 승점 25점(8승1무)으로 EPL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대로 토트넘은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며, 승점 12점(3승3무3패)으로 리그 7위에 위치하고 있다. 리버풀은 30승7무1패(리그 2위)를 기록했던 2018~2019시즌의 경기력을 이번 시즌까지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 리버풀은 개막 이후 9경기를 치르는 동안 21점(리그 최다 2위)을 득점하면서도 7실점(리그 최소 1위)만을 허용할 정도로 공·수 양면의 밸런스가 좋다. 발목 부상을 당했던 모하메드 살라가 유

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E조 3차전 헝크와의 원정경기에서 1골을 신고하며 경기 감각을 빠르게 되찾은 것도 리버풀에게는 호재다. 리버풀은 옥슬레이드 체임피언십의 멀티골에 힘입어 4-1의 승리를 거뒀다.

토트넘 역시 챔피언스리그 B조 조별리그 3차전 츠르베나 즈베즈다와의 경기에서 5-0의 대승을 거뒀지만, 리그에서는 갈 길이 멀다. 매 경기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손흥민과 더불어 헤리케인, 델리알리, 에릭센 등의 주요 선수들이 건재하지만, 리그에서 뉴캐슬, 레스터, 브라이턴에게 패했던 여파가 토트넘을 괴롭히고 있다.

K리그에서는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이 FC서울을 물리칠 것이라는 예상이 79.08%를 차지해 K리그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선보였다. 양 팀의 무승부 예상은 13.53%를 기록했고, 리그 3위에 위치해 있는 FC서울의 승리 예상은 7.39%로 가장 낮았다. 안방에서 강원FC를 맞이하는 울산(리그 1위)도 76.30%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강원FC의 승리 예상과 양 팀의 무승부 예상은 각각 15.27%와 8.43%로 집계됐다.

이번 승무패 36회차는 26일(토) 오후 1시 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케이토토(www.ktoto.co.kr)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와 함께 23일(수) 창원에 위치한 복권판매점 10곳의 판매점주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8차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로써 올 한 해 동안 준비된 모든 캠페인을 완료한 케이토토에서는 이날 역시 창원 지역의 판매점주에게 스포츠토토 판매규정을 준수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과몰입 유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건강운영서약서’에 서명을 받았으며, 판매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는 소액으로 건전한 투표권을 구매하겠다는 ‘건강구매서약서’에 약속을 받았다.

이날 캠페인에 동행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정문화팀에서는 건강한 스포츠레저문화화를 위해 서약서에 서명을 한 점주와 고객들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도박중독 예방 리플렛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캠페인에 함께 했다.

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에서는 과몰입을 통한 중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테스트(CPGI)’를 실시했다. 더불어 전문적인 상담으로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메시



지를 전달했다. 한편 총 8회에 걸친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과 별도로 4일(토)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와 함께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강릉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합 캠페인을 진행하며 건전한 투표권 문화 조성과 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 프로야구 KS 전적 맞혀라 폐북 ‘토토서베이’ 이벤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케이토토)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경기결과를 예상하는 ‘토토서베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의 대상경기는 첫 서울팀 간 맞대결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2019 한국프로야구(KBO) 한국시리즈 두산-키움전이며, 우승팀과 시리즈 전적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전까지 치러진 현재 이틀 연속 끝내 기리는 무서운 뒷심을 발휘한 두산이 2승으로 시리즈를 앞서가고 있으며, 이어지는 3차전은 25일(금)에 벌어진다. 이번 이벤트의 경우 26일(토) 오후 1시50분에 마감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 방문한 후, 이번 이벤트 페이지 내에 자신의 예측을 댓글로 달면 된다.

토토서베이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10명의 스포츠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도넛 기프트콘을 선물한다. 이번 이벤트의 당첨자는 31일(목)에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